<내가 경험한 컴퓨터 그래픽스>

2143993 백수민

1. VR(Virtual Reality)

오큘러스 퀘스트 라는 기기를 활용하여 실제 방탈출 게임이 아닌 가상 현실에서 방탈출 게임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또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체험도 VR 기기를 활용하여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가상으로 된 화면을 시각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었다. 롤러코스터의 경우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유튜브에 업로되는 360도 영상들 같은 경우로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영상 시청 중설정 버튼을 눌러 보게 되었는데 360도라는 새로운 것에 이끌려누르다보니 경험해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VR기기의 경우 다음을 활용해서 360도로 유튜브 속 화면을 볼 수 있었다.

2. 영화나 TV 프로그램

컴퓨터 그래픽스를 사용하여 특수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얼굴을 보정 하거나 폭발 효과를 넣는 등의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의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하여 현실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등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잘 활용되는 걸로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CG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영화로는 아바타가 있습니다. 모공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그래픽스 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CG를 쓴 영화 장면을 비교하여 보니 마블과 같은 SF 영화 같은 곳에서 생동감있는 몰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고 느꼈습니다.

들었습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실제 촬영된 영화 장면과



3. AR(Augmented Reality) - 애플 작년에 애플에서 증강현실을 체험하게 해준 적이 있었다.



그림과 같이 애플마크 안에 가상현실이 있으며 9.14가 되어져 있었던 경험이다. 현실 세계에 가상 객체나 정보를 추가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실제 환경과 디지털로 생성된 객체가 더해져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 신기하였다.